도내 방과후 학교 운영 "투명해 졌다"

전북교육청, 외부강사 943명 온라인 설문 결과… 85.2% 긍정적 반응

도내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 943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다.

응답자들은 방과후 학교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44.3%가 '매우 그렇다', 40.9%가 '그렇다'고 답변해 총 85.2%(803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방과후학교 계약서 상의 불리한 규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91.5%가 '없다', 선물, 상품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9.6%(939명)가 '없다', 계약 외에 무보수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7%(915명)가 '없다'로 응답했다.

이외에도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학교홈페이지 모집 공고(84.8%) 등 공적인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고 66.5%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자도 16%나 되었다.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체능 영역(42.8%), 교과 관련 영역(21.3%), 기타(12.8%), 컴퓨터 영역(12.4%), 외국어 영역(10.6%) 순이며 제도 개선을 묻는 질문에는(2가지 선택) ▲강사 선발 36.4% ▲강사료 지급 31.3% ▲부당한 업무 지시 7.7% ▲없다 61.9%로 나왔다.

한편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해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전북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청렴도도 2015년 7.80점에서 지난해 8.57점에서 경충 뛴 바 있다.

부패에 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측정하는 부패지수도 2016년 8.57점,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부패위험지수도 8.52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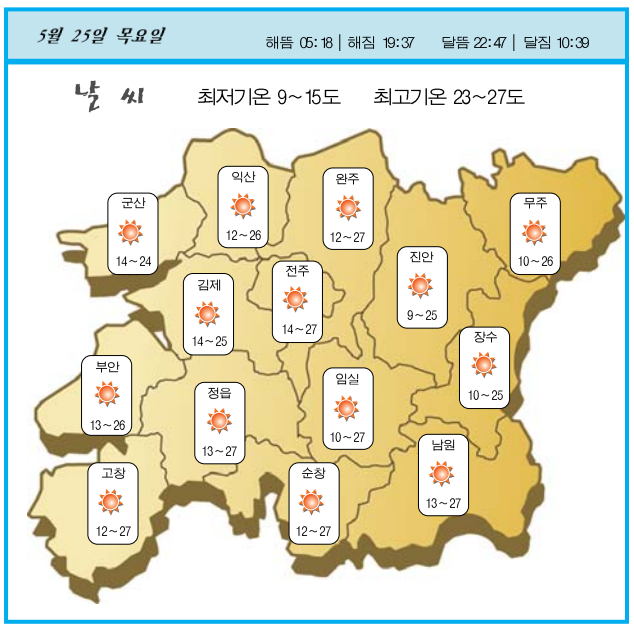
도교육청은 이번 방과후 강사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이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3일부터 한 달 간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업체 소속 강사들은 제외했다.

도내 방과후 학교 외부강사는 업체 소속을 포함해 55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설문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10년을 맞으면서 안정화된 걸 확인했다"며 "청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대주, 청년 서포터즈 힘찬 출발

청년 서포터즈 22명, 청년 열정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여할 것 다짐

미래 전주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 서포터즈 22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24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장에서 청년 서포터즈와 사회적기업 대표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6팀(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청년서포터즈를 대표해 장진호 학생이 선서를 통해 패기와 열정으로 전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청년 서포터즈는 선서에 이어 임경진 전주시 사회적경제 센터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교육을 들으며,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경제의 나눔·호혜·상생·협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에 이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탐방하고 기업의 생산품 및 서비스(공연)을 체험한 후 스토리를 작성해 각자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공유하게 된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는 전주시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등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4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교육장에서 청년 서포터즈와 사회적기업 대표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경제 청년 서포터즈 6팀(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되고, 수료증 발급, 활동실비(교통비 및 식대), SNS 포스팅 수당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 우수 활동팀은 성과 발표 및 시상식을 통해 상금 등 활동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민근 기자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 하루 장터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하루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결과로 만들어진 생산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번 장터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특수교사의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도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하루 장터에는 전주선화학교, 전주을화학교, 다솜학교, 전북혜화학교, 전북푸른학교, 동암치돌학교, 전북맹아학교, 군산산돌학교 등 8개 특수학교와 김제와 순창의 특수학급, 꿈다운공동체, 느루걸음공동체, 징검다리 등 협동조합과 공동체가 참가한다.

하루 장터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과제빵, 도자기, 천연비누, 커피콩빵, 누룽지, 책꽂이, 한지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또한 부안여상 및 김제여중 특수학급 학생, 전주선화학교 등 특수학교 학생들도 하루 장터 체험을 위해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하루 장터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해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이해와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방명애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를 초청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자기결정기술과 진로직업교육'을 주제로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도 개최한다.

/정해은기자

대안특성화고 개교 지원 T/F팀 가동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대안특성화고를 지원하는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통합형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T/F팀은 월1회 정례회의를 통해 개교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합형 대안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교원 수급대책,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보통교과와 특성화교과의 비율을 50:50을 전제로 교육과정안을 마련 중이며 교사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

T/F팀은 이승일 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이 팀장을 맡았으며 전북교육청 장학관과 사무관, 완주교육지원청, 고산고 교장과 교감, 이해숙 도의원, 고산고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4일 고산고를 대안계열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 고시했으며 같은 해 9월 장경덕 내부형 공모교장이 부임해 대안계열 학교 11곳을 방문해 다양한 운영 사례를 모아왔다.

/정해은기자